

9/23(수) 시편 묵상 24

시편 85:1-7

시편 85편은 포로된 자들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포로 귀환 이후에도 백성들의 계속된 불신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더 깊은 회개와 종말론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고라 자손이 쓴 이 시의 배경이 언제 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포로 귀환에 대한 감사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 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은 단지 그 땅의 거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베푸신 ‘은혜’는 2-3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의 진노를 푸시고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땅으로 다시 받아주신 것을 말합니다(**2-3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말씀안에 ‘주의 백성’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기된 언약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체결되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포로 되었던 자들을 다시 받아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단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살려주신 것입니다(**요일 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이 무조건적이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삶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포로귀환의 감격을 회상한 이후에 시인은 4절부터 그들이 처한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러나, 이 말씀은 포로귀환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뭔가가 남아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4절을 주석하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나라의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회복을 간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학 1:3-5,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러한 이

스라엘의 현상황은 아직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께 분노와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절, “주의 분노”, 5절, “진노”). 실질적으로 고레스 왕에 의한 남유다의 포로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 졌습니다. 제 2차 포로귀환의 지도자인 에스라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스 9:8-9,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의 분노를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까지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길 구하게 됩니다(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 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때로는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느끼는 죄책감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은 아닙니다(요일 4: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히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롬 7:24-25,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며 우리도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분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제목

1.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땅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아시아의 태일<국>, 하영광<인도네시아>, 홍리브가<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 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